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우리은행, 국내 최초로 상용 서비스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2026. 7. 27.

로켓페이 BI

- **쿠팡이 직접 투자한 '템포' 메인넷 활용, 결제부터 실시간 정산, 온/오프램프까지 전 과정 검증**
- **스테이블 코인 실사용 가능성 및 운영 안정성 확인 중소상공인 '상생·포용 금융' 실현 가능성**
- **쿠팡-우리은행, 전략적 업무 제휴 체결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테크 협력 강화할 것**
- **관련 법제화 완료 시 즉시 도입 가능한 기술적 기반 확보**

2026. 07. 27. 서울 - 쿠팡은 우리은행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실시간 정산 기술 검증(Proof of Concept)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결제부터 실시간 정산, 온/오프램프(On/Off-Ramp)까지 전 과정을 상용 서비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검증한 국내 최초 사례다.

이번 검증에서 쿠팡은 쿠팡이츠 주문 결제 건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실시간으로 송금 및 정산되는 과정을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해 냈다. 우리은행은 전자지갑과 은행 계좌를 연계하여 스테이블코인과 법정화폐 간 자금 전환을 지원하는 온/오프램프 프로세스의 구현을 맡았다.

기술 기반은 스테이블코인 특화 레이어1 블록체인인 '템포(Tempo)' 환경 위에 구현됐다. 템포는 쿠팡이 초기 파트너이자 투자사로서 참여한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글로벌 결제 기업인 스트라이프,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도이체방크 등도 주요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을 활용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 가능성과 운영 안정성을 실증하고, 상생 금융의 가능성까지 보여줬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지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쿠팡 등 그 외 서비스에서도 실제 화폐와 같이 활용할 가능성이 열려, 유통 생태계 확장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쿠팡과 우리은행은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테크 협력을 강화한다. 이에 향후 관련 제도화 시점에 맞춰 다양한 추가 기술 검증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 기술을 통해 고객 후생을 증진시키는 한편 쿠팡 파트너와의 상생·포용 금융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PoC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정산 활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금융 혁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